



동쪽 탐험 (21일)

21일 · 20박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1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동부와 중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합니다. 콜롬보에서 시작해 문화삼각지대를 거쳐 트린코말리, 파시쿠다, 아루감 베이의 동해안 해변을 따라 이동한 후 엘라와 캔디 주변의 산지에 올라 웨스턴 해안의 네고렘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 일정에 걸쳐 개인 차량과 운전 가이드를 이용하므로 정해진 버스 일정이 아닌 여행객의 속도에 맞춰 진행됩니다.

주요 명소로는 담불라의 석굴 사원, 아누라다푸라와 풀론나루와의 고대 도시,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 건기에 많은 수의 코끼리가 모이는 미너리야 국립공원의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동해안 구간에서는 트린코말리의 사원 방문, 고래 관찰, 비둘기섬의 산호초, 파시쿠다와 아루감 베이에서의 여유로운 해변 시간을 즐기며 조류 관찰을 위해 쿠마나 국립공원에 들르는 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며칠간은 엘라의 트레킹 코스와 전망대, 엘라와 캔디 주변의 차 재배지, 치아의 사원, 페라데니야의 왕립 식물원, 캔디 문화 공연, 출발 전 네고렘보 해변 방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장기 일정은 지역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문화, 야생동물, 해변 시간을 함께 원하는 여행객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어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변에서의 휴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투어는 콜롬보의 식민지 시대 유적과 활기찬 도시 생활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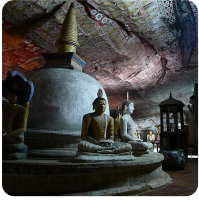
콜롬보 시내 관광

올드 라이트하우스, 구 국회의사당, 갈 페이스 호텔, 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하고, 독립광장이나 레이스 코스 주변의 쇼핑몰과 부티크 상점, 디자이너 매장도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O

Day 2 콜롬보 → 담불라 → 시가리야

문화삼각지대로 이동하며, 시가리야로 가는 길에 담불라 석굴 사원에 들립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석굴에 들어가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고대 벽화와, 신성한 왕의 석굴, 대왕의 석굴, 대신 수도원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불상과 여러 신상을 감상합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황금 불상도 볼 수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3 시가리야 → 아누라다푸라 → 폴론나루와 → 시가리야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와 아부카나의 불상을 둘러보는 당일 여행입니다.



아누라다푸라

10세기까지 천 년 넘게 수도였던 폐허의 도시를 걸으며 불탑, 승원 건물, 연못을 감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야,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 등의 명소를 방문합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아부카나 불상

하나의 돌을 통째로 조각해 만든 40피트 높이의 입상 불상을 감상합니다. 등 뒤의 얇은 받침대 하나만으로 지지되며, 정교하게 새겨진 법의 주름과 섬세하게 조각된 신체가 특징입니다. 근처의 일부 붕괴된 구조물들은 이곳이 한때 불당 안에 세워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Carlos Delgado · CC BY-SA 4.0

Day 4 시가리야 → 민네리야 → 시가리야

시가리야 바위 요새에 오르고, 전통 마을 체험을 하며,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시가리야 바위 요새

사자의 발 모양으로 만들어진 입구를 지나며, 이곳이 '사자 바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알아봅니다. 색이 바래지 않는 벽화를 감상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고대 스리랑카의 수리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계단식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를 둘러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소달구지를 타고,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느긋한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며, 논밭을 걷습니다. 이어서 전통 요리 시범을 보고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을 즐깁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유명한 '엘리펀트 개더링'에서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원을 사파리로 둘러보며, 그 외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시기리야 → 트링코말리

동해안의 트링코말리로 이동하며, 주변의 고대 유적과 자연 명소를 둘러볼 시간을 가집니다.



티리야아 와타다게

고대에 타밀 불교가 행해졌던 마을 티리야이를 탐방하고, 부처님이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유물을 준 곳으로 전해지는 기리하두 세야 불탑과 마지막 반니야르 중 한 명의 옛 요새를 방문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고래 관찰 사파리

스리랑카 남쪽 해역에서 흰긴수염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관찰하는 5시간 투어로, 책임감 있고 저영향 방식의 관찰을 중시하는 숙련된 자연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Ji-Elle · CC BY-SA 3.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작은 피전 섬과 큰 피전 섬, 그리고 큰 섬을 둘러싼 산호초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바위비둘기가 번식하는 서식지이며 다양한 산호와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6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의 사원과 요새를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성자들이 찬양하고 전 세계 역사적 인물들이 언급했던 이 고대 사원을 방문합니다. 기원전 15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신전과 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벽화가 있으며, 본당은 기원전 400년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했다고 전해지는 라바나 왕의 거대한 석상도 볼 수 있습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프레더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건설한 이 요새를 방문해, 파괴되기 전 코네스와람 사원을 이루었던 돌들을 보고,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해체되고 재건된 역사에 대해 들어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7 트링코말리

해상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트링코말리에서의 추가 하루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작은 피전 섬과 큰 피전 섬, 그리고 주변 산호초를 탐방합니다. 이곳은 바위비둘기가 번식하는 서식지이며 다양한 산호와 해양 생물이 서식합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8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에서 자유롭게 휴식하는 하루입니다.

자유 시간

호텔 시설이나 해변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Day 9 트링코말리 → 파시쿠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파시쿠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파시쿠다로 이동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파시쿠다로 이동해 느긋한 휴식을 즐깁니다.

Day 10 파시쿠다 (10~11일차)

파시쿠다 해변에서 이틀간 여유롭게 보냅니다.

해변 시간

황금빛 모래, 흔들리는 야자수, 맑고 푸른 바다를 만끽합니다.

Day 12 파시쿠다 → 아루감 베이

아루감 베이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고대 사원을 방문합니다.



무후두 마하 위하라야

포투갈 근처에 있는 이 불교 사원은 2000년도 더 전에 루후나의 카완 티사 왕이 지은 것으로, 고대 불탑과 시마 말라카, 아와사 게야, 불상 등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석상과 옛 왕이나 신으로 추정 되는 두 개의 석상도 포함됩니다.

L Manju · CC BY-SA 4.0

Day 13 아루감 베이 → 쿠마나 → 아루감 베이

다양한 조류와 습지로 유명한 쿠마나 국립공원으로의 당일 여행입니다.



쿠마나 국립공원

쿰북칸 오야 강과 남동쪽 해안을 따라 파나마 지역까지 이어지는 35,664헥타르 규모의 이 공원을 방문합니다. 5월과 6월 동안 많은 물새들이 둥지를 트는 쿠마나 빌루 맹그로브 습지와,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쿠다윌라 웨와, 톰물라 웨와, 코탈린다 웨와 같은 저수지를 둘러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4 아루감 베이 (14~15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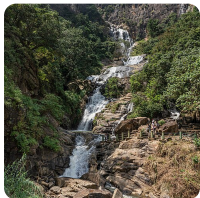
아루감 베이 해변에서 이틀간 더 여유롭게 보냅니다.

해변 시간

황금빛 모래, 흔들리는 야자수, 맑고 푸른 바다를 만끽합니다.

Day 16 아루감 베이 → 엘라

내륙에 있는 엘라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폭포를 방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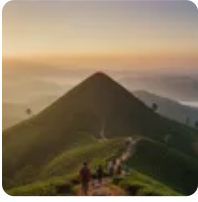
라바나 폭포

라바나 엘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에 있는 타원형의 오목한 바위에서 82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이 폭포를 감상합니다. 성수기에는 늘어진 베텔야자 꽃 모양을 띠며, 건기에는 수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A.Savin · FAL

Day 17 엘라

엘라의 전원 풍경과 명소를 걸으며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밝은 초록빛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즐깁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다리를 걸으며 건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철로 설계로 유명한 이 역에서 걷기를 마무리합니다.

A.Savin · FAL

Day 18 엘라 → 캔디

캔디로 이동하며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 잠시 들립니다.

차 공장과 농장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실론티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차는 1824년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1852년에 도착해 캔디의 룰레콘데라 농장에 정착한 제임스 테일러가 섬에 상업적 차 재배를 도입했습니다.

Day 19 캔디

캔디에서 사원, 정원, 그리고 문화 관광을 즐기는 하루입니다.



불치사(佛齒寺)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지어진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해, 장식된 통로와 조각된 기둥, 황금 불상이 있는 화려한 전시실을 둘러봅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정원을 걸으며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한 4000여 종의 식물과, 희귀한 나무, 캐논볼 나무, 현수교, 그리고 미로처럼 조성된 울타리 정원을 감상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캔디 전통 문화 공연

불춤, 칼춤,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캔디 댄서 등 스리랑카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1시간짜리 공연을 관람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20 캔디 → 네곰보

서해안으로 이동해 네곰보에서 해변 시간을 보냅니다.



네곰보 해변

서해안의 모래사장을 즐기고,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어업의 모습을 지켜보며, 수상 스포츠를 체험하고,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산호와 50년 된 난파선 사이에서 다이빙을 즐겨보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1 네곰보 → 공항

투어는 공항으로의 이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출발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출발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Breakfast
- Accommodation at 3 Star Hotels.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 포함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Tips & Portages.
- Compulsory Supplements/Peak Supplement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east-explorer-21-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